

-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 1231호
9월 9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31회 포천시기독교연합대성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임형석 목사
포천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제31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임형석 목사) 주최 포천시연합대성회가 지난 9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간 매일 저녁 7시 30분 포천시 소흘읍 호곡로 송우교회(담임 양정택 목사)에서 열려 포천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넓은 산악 지역과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지역 발전과 구원의 복음 확산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했다.

첫날 성회는 수석상임회장 조용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송우교회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연 뒤 장로상임회장 김학제 장로(순복음 아덴교회)의 기도, 서기 안정호 목사의 성경봉독, 포천시장로연합회 회원들의 특별찬양, 애하성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여 포천시 전역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늦 16:19-31 말씀을 본문으로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간구해도 거절당하고 만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하고 “성경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말하는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로 살더라도 삶의 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어 “이는 곧 부지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요절 중의 요절이다. 어쩌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여러분 모두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추호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

가든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회계 이흥근 장로의 헌금기도, 포천시시모중창단의 헌금찬양, 고분 김성환 목사의 축도, 대표회장 임형석 목사(순복음아덴교회)의 광고 순으로 첫날 성회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성회는 김관성 목사(낮은담침례교회)와 강은도 목사(더푸른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포천시기독교연합회는 금년 성회를 통해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모든 교회가 성령충만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부흥하고 포천시의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합이 확장되기를 기원했다.

포천 땅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목회하는 250여 교회 목회자들과 이 땅에 터잡고 생활하는 2만 여성도들은 포천시가 보다 더 살기 좋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 왔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다운 환경과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는 세계가 이뤄지길 기도해 왔다.

포천시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연합부흥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포천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제72차 총회 제4회 임원회

교회시설내 아동돌봄위한 법개정 청원 참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권회복, 북한핵야욕 봉쇄 국가안보 철통방어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4회 임원회가 지난 8월 21일(월) 오후 1시 가톨릭리큰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백영자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5:1~17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거니와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 수 있게 된다. 때로는 가지치기와 같은 고난도 겪게 되겠지만, 이는 내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를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 회계보고, 재무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보고 사항으로 정진균 목사는 2023년 제4회 임원회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가 대림번영교회 평창수양관에서 7.30(주일)-8.1(화) 2박 3일간 교육국(국장 조선남 목사) 주관으로 개최되었음을 보고하고 아울러 사이버신학원(신학연구원, 목회대학원) 2023년 2학기 강좌가 지난 8.21(월)개강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회계보고로 재무 백영자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선남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임원회의 일정 등이 보고·결의되었다. 새로운 인간으로 강하게 변화된 31개 교회 중 7개 교회가 원거리에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기남부지역으로 따로 원활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원을 하여 효율적인 지방회 운영을 위해 지방

회분할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 2024년도 목사교시 대상자 서류심사가 9월 7일(목) 실시되며 부흥사회 21명의 회원들이 9월 17일(주일)부터 22일(금)까지 태극선교지(김학봉 선교사)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것과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회를 9월 14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식사)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세계 회교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더하기로 기도하고 동성간 결합 법적 가족 인정 및 법적 혜택 반대, ‘성향동반자법’ 제정저지, 또한 말씀예곡으로 영혼을 수련으로 빠뜨리는 사이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특이 생기기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해, 최면형 예곡문 교과서로 교육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처가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홍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포로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건강과 치유를 위해 이렇게 말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2절)

조용목 목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말하는 기능을 주시고 그 말에 권능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주의점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믿음을 소리 내어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소리 내어 말하니 예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된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마 16:17~19)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소리 내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면 큰 문제도 제거되고, 요지부동의 문제도 옮겨지는 기적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한 결과로 전하위복의 은총을 수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에게” (롬 5:3,4)라고 말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와진리교회)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지난주에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만 500명에 육박하는데,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교 담장 안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학생생년 수습시간에 남학생이 옷통을 벗고 있기도 하고 수업하고 있는 여교사 옆에서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는 남학생도 있다. 하루종일 핸드폰으로 교사들의 말을 녹음한 후 꼬투리를 잡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없이 학교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만 4천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청구한 것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체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학생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절대 다시 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잘못되었다.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의 인권·부모의 인권은 없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헌부인권)를 말하며, 특정 신분이나 계층,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대체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의 학생인권 옹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사기구를 서울시 교육청에 남겨 두어서도 절대 안 된다. 교사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를 박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공정한 대체 조례의 제정도 강력히 반대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학교의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 교실 붕괴의 원흉,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11년간 학생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악법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은 모두가 교실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어떠한 대체 조례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8월 2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한장총, 추석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서울역 노숙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등에 쌀 전달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장총)가 지난 8월 31일 (목)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한장총은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돕기 단체를 격려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한장총의 공공성과 한국교회 사회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장총 사회정책위원장 황연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한장총 서기 김병찬 목사가 기도한 후 한장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정 목사는 “목사님들이 구제와 이웃돕기에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니 이웃돕기와 봉사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 지역자들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후에도 한장총이 이와 같



은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정책위원장 황연식 목사가 참가단체를 소개한 후 쌀과 라면을 전달했고 정서영 목사의 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한편, 한장총이 이날 쌀을 전달한 단체는

△서울역 노숙인 사역(한석교회) △위기청소년선교 △이웃사랑 △노숙인 사역 △삼파 △삼파 청소년 대안학교 한빛학교 △기흥 무료급식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 △동두천 이주인센터 △노숙인무료급식 (사)나눔 △대전 복지선교센터다.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애틀기도회 개최

세기총 주최, 하나님께서 민족회복 역사 일으켜 주실 것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8월 20일(주일) 오후 4시 미국 시애틀형제교회(원준 목사)에서 제35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애틀기도회를 개최했다.

세기총 임원들과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렘 1:10)’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준비위원장 최빅토리아 목사(세기총 법인이사)의 환영사, 대회장 전기현 장로(대표회장)의 대회사, 이상진 장로(KIMNET 공동대표)의 대표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최빅토리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35번째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시애틀에서 열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회복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회를 전한 대회회장 전기현 장로는 “우리의 통일을 위한 기도는 멈추서는 안 될 것”이라며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강조한 뒤 “세기총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 세계를 돌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권준 목사(PCUSA 총회장,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는 단 9: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돌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라면서 “어떤 시작도 기도의 시작보다 중요한 시작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회장 전기현 장로는 기도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준비위원장 최빅토리아목사와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PCUSA 총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다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한 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광고 및 인사가 있었다.

한국해비타트-가수 선, 보금자리 헌정

독립유공자 후손에 9번째... 기부마라톤 ‘815런’ 기금으로



국제 주거복지 NGO 한국해비타트는 가수 선과 함께 지난 24일 충남 보령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새 보금자리 헌정식을 가졌다.

이번 헌정식은 김정규 애국지사의 자녀인 김정중 할아버지에게 헌정한 것으로, 지난

광복절에 개최한 기부마라톤 ‘815런’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다.

김정규 애국지사는 중국에서 열린 만세운동에서 군중 800여 명과 함께 행진 시위를 이끌며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사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독립

운동가인 아버지를 따라 반바지 차림으로 북한에 연결에서 하얼빈으로 쫓겨 가야 했던 김정중 할아버지는 현재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그동안 비가 새는 비닐하우스 안 임시주택에서 장어가 있는 지녀와 함께 거주해 왔다.

독립유공자가 비닐하우스에 살면 행여나 명예가 훼손될까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도 반납하고 태극기만 걸어두었던 김정중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 쫓겨 다니던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라가 있으니 이렇게 좋은 집도 지어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815런’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선은 광복절에 81.5km를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배우 윤세아, 배우 고한민, 이연진 코치와 함께 직접 8호집 건축 현장에 참여, 지붕 마감 공사를 하고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등 집짓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아신대, 제1호 동문교회 인증패 전달

인증 제도 도입 첫 인증패 말씀과진리교회에

아신대학교가 동문교회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첫 인증패를 말씀과진리교회(담임 최동욱 목사)에 전달했다.

아신대 동문교회 인증 제도는 올해 4월말 시행했으며 아신대 출신 담임교역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학교 측은 “인증된 동문교회는 아신대의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여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 교회사역의 폭을 넓히고 일반인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이단교회들과도 구분됨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1호 동문교회로 인증을 받은 말씀과진리교회는 신학대학원 동문인 최동욱 목사가 최근 강원도 원주에 개척해 첫 출발을 시작한

는 교회이다. 최 목사는 “교회 개척과 건물 임대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독립교단 소속 교회여서 이단으로 오해받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문교회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전도사역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신대 정중영 총장은 “동문교회 인증제도를 통해 아신대를 졸업한 동문들의 복음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학교와 동문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첫 인증을 받은 말씀과진리교회와 최동욱 목사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감리교 전국부흥단, 2023 여름산상성회

성령으로 깨어나는 은혜와 성령충만의 시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이철 목사) 전국부흥단(대표단장 전영기 목사) 2023 여름산상성회가 지난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광림수도원(수)에서 개최됐다.

‘다시 성령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는 전국 목회자와 사모 평신도 등 감

리교 신앙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영성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치러지며 관심을 모았다.

21일 첫째 날에는 대표단장 전영기 목사(시화임마누엘교회)의 개회선언에 이어 사무총장 권혁중 목사(성남제일교회)의 사회로



실무총무 이흥선 목사(한민교회)의 기도, 이철 감목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삼일단장 이흥원 목사(서울한빛교회)의 사회로 열린 저녁 성회에서는 실무부총무 박성용 목사(큰소망교회)가 기도한 후 최종호 감목이 말씀을 전했다.

둘째날에는 박영민 목사(새광명교회)와 강형식 목사(청원교회), 유기성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둘째날에는 전용국 목사(도마리교회)·오금표 목사(반석교회)·이길윤 목사가 각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 감리교 감목회장 이철 목사는 축사에서 “특별히 올해는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는다”라며,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는 교회 부흥과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의 변화까지 가져왔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취약계층 위한 화장품 전달 소외이웃 도와

핑크에이지, 8천 4백만 원 상당 지파운데이션에

(주)피에이인터네셔널(대표 김지영)이 8천 4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 5천 6백여 개를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종관)에 기부했다.

(주)피에이인터네셔널에서 기부한 물품은 포에틱무브먼트의 ‘마일드 글로우 틴트’로 한번만 발라도 자연 착색되어 오랜 시간 무드를 즐길 수 있는 롱 라스팅 제형이 특징이며, 틴트의 단점을 보완해 수분감과 각질부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주)피에이인터네셔널 관계자는 “핑크에이지의 코스메틱 브랜드인 포에틱무브먼트 제품을 뜻깊은 일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부가 아닌, 앞으



로도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사랑을 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파운데이션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이 상생하는 구조를 지닌 지파

운데이션 나눔가게를 통해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나눔가게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며, 국내 협력기관에 지원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패션가발 브랜드인 핑크에이지는 가장 예쁜 핑크빛 나이가 영원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코스메틱 브랜드 포에틱무브먼트를 런칭하며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소아암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해 가발을 무상 지원하며 나눔활동에 동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용기총, 국가·민족·교회 위한 기도회

“사자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권준호 목사/ 이하 용기총)는 지난 8월 27일(주일)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홍산대학교양

지캠퍼스 100주년 기념예배당에서 8.27 용기총 기도 대성회(대회장 권준호 목사)를 개최했다.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포함해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윤호균 목사(화광교회) 등 용인시 목회자들이 대거 함께 했다.

용기총 회장 권준호 목사는 인사를 통해 “지금의 영적 기도의 소리,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용인을 향해 기도소리를 외쳐야 한다”라며, “회개, 회복, 부흥을 위해 사자



가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설교를 예장합동측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맡았다. 권 목사는 ‘빈들에 인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코로나를 지나 다시 비상하는 한국교회의 사명과 용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이승준 목사(기흥중앙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복합회를 위해’, 김석형 목사(용인자연교회)가 ‘대통령과 국가변명을 위해’, 김태진 목사(용인서부교회)가 ‘용인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조동욱 목사(주북제일교회)가 ‘허려운 이웃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요한 목사(용인교회)가 ‘동성애 확산저지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기도를 이끌었다.

주요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의 시간도 이어졌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구 목사) 제16회 목회자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강원도 속초시 소재 현대수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임(막 6:31)’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금년 수련회에

는 38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 녹색이 푸른 8월의 자연 속에서 휴식을 누리며 친교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 수련회는 참여자들이 취합에 맞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등산, 바다낚시,

탁구, 볼링, 족구, 워터피아 방문 등 개인 별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동요 및 기도 개사와 찬양 및 간증으로 진행된 개그맨 추대엽의 카비추 공연, 시상 및 경품추천 시간이 있었고, 지방회 및 동기별 모임 시간도 가졌다. 또 수련회 기간 중에는 제102회 2차 실행위원회와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강화와 간담회도 함께 마련됐다.

첫째날 저녁 노윤식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드린 개회예배는 준비부위원장 김원철 장로의 기도, 운영회계 황제돈 장로의 성경봉독, 조일구 총회장의 설교, 유지재단 김윤석 이사장의 격려사와 성결신학원 박광일 이사장과 성결대 김상식 총장의 축사, 이봉준 원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 생명의 말씀 ■



김영학 목사

· 경기서지방회 전임회장
· 생명나무교회 담임
·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졸업

1. 서론

몇 해 전 미국 뉴욕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가 타계했습니다. 그는 야구실력도 출중했지만 그가 남긴 명언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명언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야구선수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에게도 도전이 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운동경기는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패배로 끝나면 최후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

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말 그대로 인생의 과정은 강도로 살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말할 나위 없겠으나 신앙은 과정 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딤후 4:7)

누구나 예수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 믿고 종교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 13:24-30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최후 승리자 (딤후 4:7-8)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썩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누가 최후 승리자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는 최후 승리자가 결정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증거하다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느 시대나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배교자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며 종교인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비추어 비 진리인 것은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인정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딤후 4:8 상반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공적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 6:19-20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썩과 동물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썩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에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면류관이 보이고 최후 승리자로

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오늘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의 상급의 기회가 있습니다. (딤후 4:8 하반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최후 승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계 22:2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남을 기다리는 최후 승리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 받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인정하는 삶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 분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상급의 기회입니다.

사적 발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시대 엄청난 애국 운동을 한 지식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잠시 달라졌다 하여 ‘반민족행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기미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 애국가의 작사자 윤치호, 그 외에 이광수, 장덕수, 송진우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유독 공산주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잠시 일제에 동조한 것을 보고 반민족행위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독립운동을 했으나 공산주의에 들어간 인물들도 똑같은 잣대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덮여 씌우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역사를 비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놓으려는 정상적 행위라고 본다.

홍범도가 독립군으로 잠시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공산화하려고 했던, 소련, 중국, 북한 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과거 독립군의 공적으로써 두루뭇술하게 위인으로 덮어가려는 것은 안된다.

동 정

스승과 어른, 목사 존중 풍토돼야



서창원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가 최근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유튜브 채널의 ‘서창원의 신앙 일침’ 코너에서 ‘존중함이 무너진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서 박사는 ‘남의 행복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나의 불행은 남 탓으로 돌리면 분노와 혐오와 노예성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대통합목회 콘퍼런스



광주청사교회(백운영 목사) 부설 뿌리깊은나무국제연구소는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13일(수) 오후 2시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교회통합체플실에서 ‘32차 세대통합목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주강사는 뿌리깊은나무국제연구소 이사장 백운영 목사다. 강의는 ‘교회가 대안입니다’ 등 총 5강으로 진행된다.

조혜련 집사 찬양 음원 발표



개구원 조혜련 집사가 찬양음원 ‘어떻게’를 발표했다. 주님을 만난 자전적인 신앙 스토리가 찬양 가사에 녹아 있다. 듀엣으로 함께한 가수 송희의 화음이 어우러져 은혜와 감동을 더한다. 조 집사는 이번 찬양곡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알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가 지난 8월 31일(목)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분 앞에서 약 1시간가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하대표는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조장한다. 국회에서 이 법에 관한 조항들을 잘 모르고 제정하려 한다”라고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홍범도 홍상 육사 교정 철거 논란에 대하여

최근 광주시의 정음성 기리기와 함께,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독립군 출신의 홍범도 홍상 철거 문제가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실 홍범도는 독립군 활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1921년 이후의 행적으로 인하여 흔쾌하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홍범도는 일본군과 싸운 봉오동전투나 감포전 장군과 함께 싸운 청산리대첩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독립군이다. 그러나 1921년 일제에 의하여 쫓긴 독립군들이 대부분 소련의 스보보드니시(지유사)에서 모여 있을 때, 적군(赤軍-소련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해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홍범도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들이 있으나, 백년 양보해도, 홍범도의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우리 독립군을 무뎌한 학살한 적군편에 있고,

그가 끝까지 목숨 바쳐 싸운 다른 독립군들과 다르게, 혹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다. 홍범도는 이후 1922년 모스크바에 가서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으로부터 상급과 자기 이름이 새겨진 권총과 소련 군복을 하사 받았고, 소련군 제6군단 합동민족여단의 대위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카지흐스탄으로 옮겨져 살다 1943년 당시로서는 드물게 75세로 장수하였다.

나라 잃고, 국권 잃고, 오갈데 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의 시대적 비극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과는 동떨어진 분들이기에 오랫동안 역사에 묻어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홍범도의 홍상(다른 네 분도 포함되나 논란이 되지

않음)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우게 하고, 육사생들에게 경례를 하게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홍범도의 유해(遺骸)를 가져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시킨다.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잘못된 역사관을 고친다는 입장에서, 육사 교정의 홍범도 홍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광복회까지 가세하여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근본과 역사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육사는 77년의 전통을 가진 호국 건성의 요람이다. 육사는 해방 이후 생긴 군사전문학교이다. 또 이들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크게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게 된다. 지금까지 육사 출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1,478명이 순화했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육사 교정에 공산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범도의 흉상을 세워놓고 육사생들이 거수경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홍범도를 부각시키려다 오히려 국민들이 홍범도의 과거 이력을 더 자세히 알아버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의 주적(主敵)인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육사 생도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에 의한 6.25남침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원봉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그런 위치에서 공산주의자이며, 우리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은 말자, 물어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이호해수욕장에서 침례식

온전한 신앙고백과 함께 주님 명령에 순종 결단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는 지난 8월 27일(주일) 오후 2시 제주도 소재 이호해수욕장에서 온전한 신앙고백과 함께 주님 명령에 순종을 결단한 성도들의 침례식을 거행했다.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건수 목사의 집례로 바다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 된 침례를 통해 물속에 잠김으로 첫 아담에 속했던 지옥 갈 좌인의 신분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여 물속에 장례 치르고, 물위로 올라옴으로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기뻐함을 못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했다.

이날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침례식 현장까지 따라가서 침례

받는 자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격려해주었다.



은막교회 창립감사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8월 28일(토) 오전 11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

천읍 해변로 241길 17-15에 위치한 은막교회(담임 김심자 목사)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성기찬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뱀 31:10~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흡족함과 만족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창립 및 취임 선포가 있는 후 회계 황용식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권면, 김원주 원로 목사(산방교회)와 김용구 목사(생수의 강교회),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사, 전임지방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회원들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은막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주고 받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강원도 평창과 주문진에서 야유회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월)~30일(수) 2박 3일 동안 강원도 평창과 주문진에서 야유회를 갖고 몸과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첫째 날, 평창에 있는 관전선굴에 들어서 피서를 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후 8시에

월레회 겸 도착예배를 드렸다.

임춘동 목사(성화교회)는 담후 4:6-8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질문3가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 신 한 싸움을 잘 싸웠느냐 2) 달랠랴 길을 제대로 달랠렀느냐 3)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하는 물음을 갖고 하나님의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전했다.

이어서 성령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부 회의에서는 회무보고를 마치고 총회

와 지방회와 개인 기도제목과 야외 일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둘째 날, 오대산 전나무숲길에서 산책을 하고 주문진으로 가서 맛있는 회를 먹고 하늘에 비를 막아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감사했다. 강원도에서의 추억을 사진에 담고 회원 간의 담소와 친교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셋째 날, 오전 10시에 모여 출발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

김규리 목사(순복음관악교회)의 예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덕영 목사의 뱀 8: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가 알지니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 내가 아는 하나님 2)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3)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협력했을 때 선을 이루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숙소에서 출발해 이천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서울을 출발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청귤(풋귤)로 수제 청귤청 만들어 판매

제주한마음교회, 선교비 장학금 등에 사용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 여선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지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대신하여 올해에도 제주도에서 매년 8~9월에만 수확하는 청귤(풋귤)로 수제 청귤청을 만들어 판매한다.

제주한마음교회 여선교회에서는 정성껏 수확한 청귤을 직접 성도들이 모여 청귤청을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금으로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주고, 가정형편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적극 힘을 모으고 있다.

서귀포에서 갓 수확한 풋귤을 바로 공수해 와서 베이킹 소다수와 식초로 깨끗이 세척하고 24kg 유리병을 100℃ 끓는 물에 소독 건조시킨 후 청귤을 얇게 썰어서 설탕과 올리고당을 적정한 비율로 혼합 후 숙성시켜 청귤청을 담는다.

청귤청의 효능은 최근에 마스크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항산화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1차에 500여 병을 만들어 전량 판매 하였고,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2차분 280병을 만들어 현재 60병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 혹시 청귤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한마음교회로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010-3698-5764)



‘주안에서 하나 되고 즐거운 지방회가 되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비율 목사)는 지난 8월 14일(월) 오전 11시 열린축복교회(담임 전하세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

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성혜교회 이동운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해 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 김재곤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말씀봉독, 윤진철 목사(선단순복음교회)의 헌

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전임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 담임)는 뱀 11:19-26 말씀을 본문으로 '사대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나누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안에서 하나 되고 즐거운 지방회가 되자'는 경기지방회의 슬로건이 물씬 풍기는 모임이 되었다.

특히 신앙회원으로 가입한 산정리순복음교회 이병찬 전도사 기임 인사로 경기지역의 복음 확산을 위한 동역자들의 동행에 전 회원 모두를 환영하며 기뻐했다.

예배 후 회의를 마친 후 열린축복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모든 회원들은 영육간의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폐지, 사이버이단 대처 나라 위해 기도

광주성시화 조찬 기도회, 최정식 목사 설교

광주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8월 30일(수) 오전 7시 분향교회(제영남 목사사무소에서) 드려졌다. 이날 기도회는 상임회장 김원우 목사의

인도로 광주시 북구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가 담전 2:4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날 설교에서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소원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과 부합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하며 그것은 영력, 려력, 재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시간에는 '나라와 민족과 복음통일'을 위해, '광주학생인권조례폐지와 교권회복'을 위해, '사이버이단대처와 거룩한 광주'를 위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 기도한 후 고문 맹연환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친교의 시간에는 고문 채영남 목사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맡은 최정식 목사가 조찬을 섰다.



하늘샘교회 이전 감사예배 드리고 목회 전념 다짐

총서지방회

총서지방회(회장 이인복 목사)는 지난 9월 2일(토) 오전 11시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01번길 5에 위치한 하늘샘교회(전 한사랑교회, 담임 안홍규 목사)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엘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이종한 목사(양분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본 교회 안희선 자매의 특송 후, 지방회장 이인복 목사(송죽교회)가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기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고백한 베드로처럼 기쁨 부음 받은 자는 성별된 자로서 우리에게 부

여된 사명을 감당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로 지역의 영혼 구령에 동기를 분명히 갖고 목회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직전지방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축사,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김경만 목사(배방중앙침례교회)의 축사, 전임총회장 진동용 목사(은암은혜교회)

리교회)가 권면의 말씀으로 "목회자는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담임 안홍규 목사의 광고와 인사말이 있는 후 전임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이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장소로 이동하여 준비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 다짐

탁구동우회 청주아가페교회에서 9월 모임 가져

교단 스포츠선교회 산하 탁구동우회는 지난 9월 4일(월) 오전 11시 청주아가페교회(담임 이만석 목사)에서 9월 모임을 갖고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

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회원들은 먼저 하나님께 모임에 앞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청주의 한 탁구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연습경기과 단식, 복식 등 친선 경기를 갖고 건강한 마음과 육체



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11차 전국사모회단합대회

강사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병묵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 모시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폭염으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시는
존경하는 사모님들!

심신의 휴식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제11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 33:29a)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의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 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신명희 -

주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 33:29a)

| 일 자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2시등록, 3시 시작 ~ 18일(수) 오전 10:30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 (왕림2길 76)

| 대 상 | 교단 산하전국 교회 목회자 사모

| 후원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 문 의 |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2023 전국사모회 전직회장단

전임회장

김양란 사모
(모함안디옥교회)

전임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전임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전임회장

차추련 사모
(인동성곡교회)

전임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직전회장

김귀순 사모
이세아순복음교회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2023 전국사모회 임원진

1부회장

이을순 사모
(갈릴리온소망교회)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파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조은숙 사모
(경찰청교회)

서기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재무

조동숙 사모
(오성사랑교회)

부회계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제11차 전국사모회 일정표

	16일(월)	17일(화)	18일(수)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00		신앙유산탐방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찬양
10:00~11:00			폐회예배
11:00~12:00			설교:김병묵총회장목사님
12:00~13:00		정식식사	
13:00~15:00	등 록	회복의산책 (바다향기수목원)	
15:00~17:30	O.T. 지방회소개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1:00	개회예배 설교:정책위원장님 기도회	나눔과 간증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문화세우기 특별세미나’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이상구 목사)와 예정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일 목사)가 연합하여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와 폐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문화세우기 특별세미나’를 지난 8월 31일(목) 오후 7시 제주영락교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로 강의에 나선 장로회신학대학교 소기전 교수는 성경적, 신학적으로 우상숭배와 율행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과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히브리어 토에바=금지, 혐오스럽게) 여기시는 행위이기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강의를 한 일산 제자광성교회의 박한수목사는 기존에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속의 독소조항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어 설명해 주면서 결국 이 법은 교회를 파괴하는 법으로서 이미 통과된 유령교회의 몰락을 예로 들어 주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모

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학부모교육연대 신혜정 대표(제주한미음교회 집사)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위한 전국 조직 결성 소식과 제주도 조직도를 발표했고, 2020년도에 제주도에서 1만여 성도님들의 반대서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제거했었고, 작년에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혐오표현방지조례안의 저지를 위해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결국 상정보류 후 폐기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힘을 모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부회장이며, 특별위원장인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는 광고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의 실효를 드러내기 위해 제주도에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고 있는 여러분이 제주도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피수꾼인 만큼 우리가 들고 배운 이 내용을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 주변에 널리 알려져서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다음세대를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NH농협-D.F장학회, 후원금 전달식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위해 200만 원 전달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택 이사장/이하 본부)는 지난 8월 24일(목)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부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총정로역지점(김동문 지점장)의 D.F장학회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본부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뇌사 장기기증인 중 30~50대가 1,322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해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성년 자녀를 둔 많은 기증이 뇌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에 본부는 2020년부터 D.F장학회(Donor Family 장학회)를 출범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통해 기증인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과 재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D.F장학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한 NH농협은행 총정로역지점은 이날 장학금 200만 원을 후원하며 유자녀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30년 넘게 구호단체를 후원하며 사회 공헌가의



길을 걸어온 NH농협은행 총정로역지점 김동문 지점장은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기증인과 유가족의 고귀한 사랑 실천에 크게 감명 받았다.”라며, “유자녀들이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생명나눔의 운기를 전하는 선한 이웃을 만나 뜻깊다.”라며, “NH농협은행 총정로역지점의 후원이 시발점이 되어 뇌사 장기기증인과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 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서대문구 총정로 풍산빌딩에 개점한 NH농협은행 총정로역지점 은 개점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지점 측은 지난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한국 펄벅재단을 후원하고,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에게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올해에도 강원도 양구군의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고, 올해 지역 발전을 위해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는 등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있다.

기아대책, 서울시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위해 나서

지원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 진행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 기아대책과 서울시가 손을 잡았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8월 22일(화)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각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

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해 서울시 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과 서울시 등 협약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과 부양가족

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 교육비, 의료비 등을 후원할 방침이며 관내 가족돌봄청년들이 모여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조모임비’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기아대책의 국내 복지 사업 전문성을 활용해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족 부양에 대한 짐을 덜고 스스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처리수 방류 논평

방사능 오염 처리수에 대한 국제 IAEA 조사단의 검증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다

방사능 오염 처리수에 대한 국내외 과학자들의 발표와 국제 IAEA 조사단의 검증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다.

과학적 기준에 맞는 해양 방류는 국제사회 양식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공개해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12년 만에 8월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로 표현)를 희석해 하루 400t을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8월 25일 오전 11시 방류 개시한 사고 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해 ‘처리수 방출구 인근(반경 3km) 외 곳에서 채취한 해수로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리터(L)당 10배크렐(64방사는 단위)을 밑돌아 검출 한계치(기준치)미만이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도 별 영향 없었다. IAEA는 25일 6개 안전성 수치(안전성 관련 지표, 오염수의 유량, 삼중수소 농도, 방사선량과 희석수용 해수의 방사선량, 시간당 유입량, ALPS 처리 후 방사선량)가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IAEA가 측정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당 206Bq로 WHO가 정한 식수 수질 지침의 기준치(1만Bq 이하)보다 훨씬 낮았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이 마련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이 국제기준에 들어맞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7월 4일 일본에서 발표했다. IAEA의 조사는 미국·프랑스·한국·중국 등의 여러 신뢰할 만한 연구소에 시료를 보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러 전문가가 결과를 독립적으로 도출하고 비교한 결과이고 모든 절차는 매우 투명하게 진행됐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한국 전문가를 분석에 참여시켰다. 한국은 IAEA가 채취 시료를 직접 검증해볼리는 취지로 보내준 4국 중 하나였다.

리파엘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방한 중 7월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후쿠시마에서 방출될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등은 모든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식탁 위의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수소는 들었다. 물론 나도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국제기구가 엄격한 절차를 밟아 내린 결론이라도 꼭 그걸 수긍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방류수를 우리보다 앞서 만나게 될 캐나다·미국·뉴질랜드·호주 등의 정부 기관들은 모두 ‘위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오염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우리 정치권은 물로 희석해 싸우고 있다. 더 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누구보다 앞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IAEA의 결정을 부인하는 파당적 정치적 시위로서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다. 오염수 논란으로 여민들을 곤지에 몰아 넣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민주당이 부산, 인천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어 천원일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야당 대표가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피켓을 들고 선동하는데 반하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오염수 문제로 내부가 갈라져 싸우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정치권의 괴담을 경계하면서도 수산물 안전성을 두고 불안해했다.

살롱나비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적 문제이니 만큼 정략적으로 접근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한국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와 국제 IAEA 조사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같이 우리 견해를 천명한다.

1. 방사능 오염 처리수에 대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대책으로 행동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한국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X레이 한 차례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학자들도 대부분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물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정화 장치로 거르고 삼중수소도 바닷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국내 유입량은 자연 발생량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

다. 이런 물질의 바다 유입은 중국 원전에서 50배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삼중수소 농도는 기존 바닷물의 17만분의 1로 희석될 거라는 연구가 나와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꺼번에 바다로 방류한 후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로 한국 원양어업 어획량을 모두 채운다 해도, 한국인의 추가 피폭 방사선량은 흉부 X레이 한 장의 1000만분의 1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2.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의 위험성은 후쿠시마를 거친 해류가 먼저 도착하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먼저 제거해야하나 이들 나리들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4-5년 뒤에야 한국 해역에 도착한다. 그때쯤이면 한국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존 농도에서 17만분의 1 정도 추가로 뽀아라는 것이 전문가를 설명이다. 만일 바닷물이 방류수로 인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염된다면 후쿠시마를 거친 해류가 한국보다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 나라들에서 방류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는 없다. 프랑스 제자리 설비 한 곳에서만 후쿠시마 연간 방류 예정량의 500배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어도 유럽 국가들이 항의한다는 얘기도 없다.

3. 국내 과학자들의 발표와 국제 IAEA 조사단의 과학적인 발표에 따르는 것이 과학적이다.

검증 및 평가 과학자들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은 국내외 주요 대학 교수와 전문가다. ‘공포 대신 과학으로 풀자’고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국제적 방사선 안전 기관 방사선방호위원회(ICRP)위원을 지냈다. 각종 괴담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하는 대학교수는 문제인 정부 때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했다. 최근 후쿠시마를 방문한 시찰단도 대부분 원자력 안전을 10~20년 이상 연구한 전문가들. 방사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웨이드 엘리스 교수(옥스퍼드대)는 “정화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당장 마셔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

만 이재명 대표는 그를 ‘돌팔이’로 매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도 부정했다. ‘과학’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4.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쿄전력의 매일 해양 영향 평가, IAEA의 모니터링, 오염수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즉각 방류 중단한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물에 섞여져 된 세숫대야 같은 방사성물질 64종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제거한 후 대형 수조에 저장해 왔다. 하지만 오염수 중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는 ALPS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도쿄전력은 이에 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다음 방류를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사무실을 개설하고 오염수의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매일 해양 방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넘는 농도가 나오면 즉각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IAEA의 방류 현장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방문해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사능처리수 방류에 대하여는 함께 대처하는 국제적 감시와 연대와 이해가 요청된다.

5. 과학적 기준에 맞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 양식을 수용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일본 과학자들은 땅이 좁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는 처리, 희석시켜 해류 방류가 과학적이라고 판단한다. 각 나라가 주권이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일본은 독단적으로 방류하지 않고 국제적인 기구인 IAEA에 검증을 의뢰한 것이다. IAEA는 과학적 기준에 의하여 방류를 허용했다. 그리고 IAEA와 한국원자력전문가들도 방류해도 한국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모든 태평양 연안국들이 수용하는 IAEA 보고서를 한국의 일부 세력이 ‘강동보고서’로 폄하하면서 거짓선동을 하는 것은 국

내 수산업의 보전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6. 환경에 까다로운 독일, 미국 등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기준에 맞다고 허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8월 24일(현지 시각) ‘일본 계획이 주변의 화를 부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과 한국 좌파 진영의 비판이 특히 거세다. 이들의 항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레미아네 차이퐁은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는 철저하게 여과되고 희석됐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번 조치가 무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하노버 방사선 생태학 및 방사선방호연구소의 클레멘스 발터 교수는 주간지 슈피겔과 뉴스 프로그램 티게스사우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해안 생선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프랑스 북부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제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원전의 물 저장고에서 처리수(오염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행하는 상황에 과학계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IAEA 핵 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안전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한다”고 표명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호응하는 것이 선진국적인 양식(良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괴담에 미혹 당하지 않고 국제적 양식에 따른 과학과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 만들어가야 한다.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는 기본적으로 일본 문제다. 야당과 일부 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면 국민 불안을 조장하여 우리 수산물 업계가 피해를 본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 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준다. 그래서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피폭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후쿠시마 인근 바다 물고기들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피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10m 높은 4층으로 이사갈 때 늘어나는 피폭량의 28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험성을 따진다는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다. 청담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파당적 선전이나 비과학적 괴담보다 과학적 사실을 믿어야 한다.

8. 민주당이 중국과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오염수 괴담은 국민을 분열하고 국격을 훼손한다

야당이 원전 방류수 반대를 위해 중국 측과 손잡으려는 것은 한미관로 나뉜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중국의 동쪽 연안에 몰려 있다. 우리 서해와 바로 맞닿아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달한다. 중국 쪽 방류량은 수심이 얇은 서해로 곧바로 쏟아져 들어온다. 원전 방류수가 문제라면 일본보다 중국 쪽에 먼저 철저한 정화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 원전의 위험성은 눈감고 있으면서 일본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그 관행성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 등이 만들어내는 괴담은 너무나 과학과 동떨어져 있다. 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서 “야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전문가를 몰라야라고 몰아세우고 유엔 기구인 IAEA 검증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의 나라, 세계 7번째로 우주 로켓을 쏘 나르는 게 무색할 정도다. 선진국이 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조선조의 위정척사 사고에 벗어난 국제규범에 맞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9.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감시하고 공개해서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리투아니아 나토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한국이 방류를 허용하되, 한국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어야 한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북콘서트 개최

아신대학교 도서관 지역 주민과 함께

아신대학교(총장 정흥열) 도서관은 지난 8월 28일 (월) 지역민을 대상으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 북콘서트를 열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은 ‘지신아 사랑해’ 이후 10년 만에 출간된 이지신 작가의 두 번째 책이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이지신 작가의 책 낭독과 박송아 챗리스트의 챗료연주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아신대학교 도서관은 양평군 가족센터와 함께 아주 배경여성과 지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포토포이스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공연도 이들의 지립을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포토포이스 전시회는 9월 18일(월)부터 일주일간 카페 옥이네에서 열린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6면에서 이어짐

일본은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측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처리수 방류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공한 방류수의 방사능 수치만 공개하면서 “방류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이상 상황은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안 하면서 일본 쪽 상황만 중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말이나 내달 초 우리 해역에서 월 1~2 회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 국민이 불안한 상태에서 정부는 과학적 정보와 수치

를 빨리 제공해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 측정 지점과 횟수를 크게 늘려 200곳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해역 어느 곳에서도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았다. 반대 단체들은 방류하면 바로 우리 바다에 영향이 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은 방류가 시작될 때 가장 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8월 24일 이후 직접 우리 바다에서 측정할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관계 기관들이 민첩하게 협조해 상징적인 곳 몇 곳에서도 방사능을 측정해 발표한다면 국민 불안은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과학적 검사에 입각한 오염 농도 공개가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8일
실뽕을 꾸꾸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을 삶으로...

천상의 신록야산을 적시는데
천상의 향기 취한 산새소리에
웅달샘마져 하나님의 영광 화답하네.

아, 그러운 천상의 기쁨이여, 생명의 신비여,
지혜로운 등불 준비, 순결의 신부되리라.
순결의 신부되리라.

신록의 지평언덕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은 아들을 품어주시
시간의 진실은 아들의 가면을 벗기리라.

아, 찬란한 천국열쇠여 이곳에 주님의 몸 세우셨네.
확언의 풍광이여, 너 예수의 빛 앞에 잠잠하라,
주께서 명하셨네.

교회여, 생명이여,
온 누리 깊고 높푸른 하늘의 영광 찬양하라.
이곳에 오는 아여 주의 평화있으라.

이곳에 머무는 아여, 주의 기쁨 있으라.
이곳을 나서는 아여, 주의 축복 누리소서.

아, 그러운 영혼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
축복의 전당되소서.
아, 복된 주의 몸이시여,
거룩한 주의 임재 넘치소서.
주의 감동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진리의 전당이 되소서.
진리의 전당이 되소서.

쉽 없이 코로나 때에도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스텝들과 끊임없이 전도세미나 전도현장을
거리로, 공원으로, 일터전으로 상기로,
복음의 햇살을 들고 나신다.

이번 주에는 천안 순금등대교회 전도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많은 도전이 되었다.
순금과 같은 귀한 목사님 내외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불을 붙여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는다.

아젿밤에는 피종진 목사 초청으로
서울강남 반석교회기도원 침관예배에 드렸는데
뜨거운 열정이 예배와 함께
삶으로 드러내는 현상이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발이 부르르도록 뛰어나니며
섬김의 노고를 다하는 담임 목사.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서울반석교회기도원과 목사님의 비전을
축하드립니다.

가족세트 본부장 사인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독거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 노인대학 ‘고독생 프로젝트’ 실시

죽방촌과 독거어르신 만나눔사역을 하는 소셜서비스 전문NGO (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장한일)는 엘드림 노인대학 신한대 K-뷰티소사이터연구소 (소장 최에스터 교수/ 엘드림 노인대학장)와 함께 지난 8월 28일(월) 마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한 ‘고독생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최에스터 소장은 “고독과 우울증을 막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고독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독거어르신의 안전과 소통을 위한 휴대폰 활용방법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kiosk)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맡은 장민혁 교수(KBSI 연구원, WBH사무총장)는 “독거어르신이 단순히 디지털 기기사용 능력을 넘어 올바른 정보탐색과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키오스크 활용을 위해 현장 교육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엘드림 노인대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한일 이사장은 “엘드림 노인대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휴대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을 지속하여 사회와 고립되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게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마음), 최원희 강사(엘드림노인대학), 이상진 노인대학 반장, 현귀순 부반장 등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월간목회’ 9월호

농산어촌교회의 현장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월간목회’ 9월호부터 12월호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오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에 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학문적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경험적 현장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어려움을 마주한 목회자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9월호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는 농산어촌교회의 현장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 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상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략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바바라 존슨 여사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생 각 자체가 슬픈 일인데, 평범한 주부가 그 일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으며, 첫째 아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어 죽었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연설가, 유머작가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15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600만 권 이상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한바탕 웃을 수 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감정들 떨쳐버리기’ ‘슬픈 것들, 불행아가 된 자녀들로 인한 속상함’, ‘마음을 후벼 파는 상처들, 후회와 좌절들을 마음에서 진정으로 떨쳐버릴 때 우리는 내면의 참된 평화와 기

쁨을 맛볼 수 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과 유머(Humor)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을 통해서 유머를 통해서도 우리들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감사하라.’

‘No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 Yes라고 말하라.’

‘선행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라.’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주님 때문에...



의미 없는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짓 하나에도...

손짓 하나에도...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마음을 닮고

싶은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은 보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로(행 22:9)

소리는 들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로(행 9:7)

살지 않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벽차하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다.

사설

여호와와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퇴계 이황 선생의 평생의 소원은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였다. 퇴계 이황 선생은 선한 사람이 많은 사회를 꿈꾸며 살았다. 그래서 만년에 퇴계는 벼슬길을 버리고 안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양성하는 데 있다.

문치마 폭행이 유행처럼 성행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돌팔이’라고 불려도 맞다며 박수치며 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과학이 무시되고 상식을 무시하고 무지와 이념적 위선이 가득 차 있는 일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제대로 된 사회인가?

공자는 ‘배우기만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했다. 무조건 배우기만 하거나 그렇게 강요하는 일들의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배웠으면 그런 기하고 따져 묻고 깊숙이 생각하면서 논리를 배우라는 뜻이다. 생각 없이 학습만 하면 왜 나쁜가? 세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세뇌는 심각한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지독한 우민으로 전락해 국가와 사회의 큰 재앙으로 변하기 십상이다.

민주당의 세 명의 대통령들이 극찬한 사람이 김훈(75)이다. 그러나 최근 그가 조국 일가의 임시 비리를 거론한 기고문에서 ‘내 새끼 지상주의는 이 나라 수많은 권위들에 의해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 세는 해로운 새 라며 아관저지충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노망이 들었다’, ‘절필하라’, ‘책을 다 갖다 버리겠다’는 악플들을 달았다. ‘비밀하고 비열한 살행이’라며 비난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 분별적 논리가 나라를 두 동강으로 갈라 버렸다.

갈라치기의 대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런 이 방법으로 1991년 시인 김지하 씨를 변절자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2001년 소설가 이문열씨에게 곡학아세(曲學阿世)한다며 그의 책들을 불태웠다. 마치 중국의 시황제 때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보는 듯한 감정이 일었다. 김훈 씨는 남한산성 2007 서문에서 ‘나는 아무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다’라고 했다.

나라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디를 가나, 어디를 보나 진영 논리가 팽배해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는 위험 단계에 있다고 진단을 한다. 세계의 민주주의도 2008년에 정점을 찍고 침체기에 들었다고 한다. 이 유는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어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 상대 당에 적대감을 느끼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에 대한 입장차이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집회를 가진 게 대표적 사례다. 조국 사태 이후 1987년 민주화 이래 공유해 온 국민의 상식이 모조리 깨졌다.

21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이나 선거법 개정 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관습을 모두 깨버렸다. 상대를 경쟁자로 보는 상호 인정,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치는 경쟁에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목하 자살중이라는 말이다.

강대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를 망친 세력이 누구냐를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도 우리에게 없다. 모두가 다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행복의 기원 2014’의 저자 서은국(57)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요즘 한국사회는 지옥으로 가는 길’ 같다고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절망은 없다. 행복의 요건중의 하나가 서로 조력하는 것이듯, 서로가 조력하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포모(FOMO, 소외불안감)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포모증후군이란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마구하게 되는 것이다.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려놓았던 허딩크의 핵심 지도력은 기본에 충실이다. 특별한데에 신의 한수가 있는 게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

“오직 정의를 몰 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잠 5:24)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 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와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잠 3:25-26)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2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9월 7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군